



넘어야 할 마지막 고비

이부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전교조 합법화가 발표되면 날

지난 2월 6일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으로 전교조 합법화가 발표되자 전교조 사무실은 며칠간 전국 각지에서 길러오는 축하와 격려 전화로 떠들썩한 분위기였다. 감격과 흥분으로 들뜬 축하의 목소리, 지금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성급한 의견의 목소리, 그 동안 고생이 많았다는 시민들의 위로의 목소리, 신문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는 옛 스승의 고마운 격려의 목소리, 전교조의 현황과 활동 방향을 묻

는 언론사의 취재와 인터뷰 지난 10년 세월 온갖 고난과 시련을 견디며 이루어낸 합법화 소식이었으니 맘껏 축하를 나누는 무슨 흥이 될 것인가.

그러나, 지도부로서는 마냥 기뻐 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다. 그 이유의 하나는 노동현장에서 해고의 위협 속에 목줄을 걸고 싸우고 있는 노동행제들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었고, 또 하나는 아직도 입법과 과정에서 넘어야 할 마지막 고비를 넘겨야 하기 때문이었다.

전교조 조합원 가운데서도 전교조의 합

법화는 정리해고를 양보한 대가가 아니라
 는 자괴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전교조
 가 노사정 국면에서 가장 억울하고 괴로웠
 던 것은 바로 이러한 억지 논리였다. 이러
 한 논리는 사실 정권과 언론에 의해 의도
 적으로 왜곡된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전교조 합법화는 정리해고와 맞바꾼 것인가

전교조는 지난 10년 동안 '노동조합' 이
 라는 깃발 하나를 지키기 위해 그 험난한
 가시밭길을 걸어오지 않았던가. 독재 정권
 의 그 엄청난 이념 공세와 무자비한 탄압
 은 무엇 때문이었겠는가. 그것은 바로 '교
 사'는 '노동자'라는 선언 때문이었다. 우
 리는 지난 정권으로부터 '노동'이라는 낱
 말만 양보하던 합법화를 시켜주겠다는 유
 혹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이를 단호히 거
 부해 왔다. 그러한 전교조에게 노동형제들
 의 목줄을 맞바꾸어 합법화를 인정했다는
 논리는 전교조의 자존심으로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는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이 두 가
 지는 애초부터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
 의 문제가 아니었던가.

정리해고는 우리의 단결과 투쟁을 통하
 여 최대한 저지해야 할 문제였고, 교원의
 노동기본권은 독재 권력으로부터 억압받
 아 온 교사들의 정당한 기본권의 문제였
 다. 전교조 합법화는 지난 10년간 온갖 탄
 압을 견디면서 노동 동지들과 함께 싸워
 온 투쟁의 성과일 뿐 결코 정리해고와 맞
 바꿀 흥정의 대상은 아니었다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다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는 신중한 목소리도 적지 않았
 다. 그만큼 전교조가 헤쳐나 가야 할 과제
 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올 가
 을 정기국회의 법제화 과정과 내년 7월 시
 행되기까지의 과정에는 노동조합으로서의
 합법화 문제를 비롯하여 교섭의 범위, 내
 용, 형태 등 수많은 난제들이 가로놓여 있
 기 때문이다. 교육계 내 기득권 세력의 지
 항과 정치권 보수세력의 반대의 목소리가
 벌써 목청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노사정위원회 합의가 발표되지 한국
 교총과 사학재단연합회에서는 일제히 집
 회와 성명을 통하여 전교조 반대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해방 이후 50년 동안
 유일 합법 단체로서 정권의 비호를 받으며
 독점적인 기득권을 누려온 한국교총으로
 시는 조직의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일 것
 이다. 교장을 비롯한 교육관료 중심의 한
 국교총은 전교조의 합법화가 법제화되는
 동시에 많은 평교사들의 이탈로 조직이 와
 해될 것이라는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들이 교직을 전문직이라고 강변
 하면서 '교원노조를 한사코 반대'하는 전
 쟁 이유는 바로 그들이 교사 위에 군림하
 면서 누려온 기득권을 빼앗기게 된다는 위
 기감 때문이다.

사학재단연합회가 사활을 걸고 반대하
 고 있는 이유 역시 철저한 기득권의 보호
 에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사학재단이

교육을 불모로 잡고 저질러온 비리와 교사에 대한 비민주적인 전횡은 무소불위에 가깝다.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사립학교 교사 서명은 사학의 비민주적이고 비인간적인 행태의 한 단면이다. 교사들의 목줄을 걸고 자행되는 직간접적인 협박과 회유는 아이들 앞에 담당해야 할 교사의 자존심을 짓밟는 가혹한 형벌이다.

이를 거부하는 교사에게는 인사 교류의 원칙도 없고 본인의 동의도 없이 재단 내의 다른 학교로 보복성 전보를 시키고 있다. 자칫 잘못되어 헤고라도 당하게 되는 날이면 수년 간 지난한 법정 투쟁을 벌이는 것 외에 그 어디 기댈 곳조차 없는 처지가 되고 마는 것이 사립학교 교사의 신분이다.

그들은 전교조에 대한 반대의 논리가 빈약하자 사학재단에게도 정리해고할 권리와 계약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등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 교육은 국가의 공공사업으로서 일반 기업과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대다수의 사학들은 이윤 추구와 출세의 방편으로 학교를 설립하고 경영해 왔다. 그런데 사실상 사립학교법에는 정리해고와 비슷한 약법 조항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사립학교의 교사들이 이 법에 의하여 해직 당하는 일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학교가 폐교되는 경우는 물론 학급 감축이나 폐과로 인하여 과원이 되는 경우 어떠한 제도적 보장도 없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립교사들의 신세이다.

전교조가 그 동안 이러한 약법 개정을 요구해 온 근거는 두 가지다. 교육은 국가

가 책임을 지는 공공 사업으로서 사학에 의뢰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가 전체의 사업이기 때문에 공립으로 특례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그리고 현재 사립 중·고등학교의 97% 정도는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의 임면권도 사학재단이 아니라 정부의 권한으로 바뀌는 것이 당연한 논리가 아니겠는가.

넘어야 할 고비, 사학재단과 한교총의 반대

사학재단연합회와 한교총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전교조 반대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그동안 잘 써먹던 상투적인 방식은 학생들을 불모로 보수적인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여 반대 여론을 형성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각종 여론 조사 결과는 이들의 반대 논리가 국민들에게 별 설득력이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전교조는 그동안 일부 보수적인 사람들을 제외하면 폭넓은 국민적 지지를 받아왔음이 사실이다. 이제 정치적으로 합법성을 획득한 전교조의 활동을 적극 홍보해 나간다면 국민 절대 다수가 지지하고 호응해 줄 것으로 믿는다.

사학재단의 또 하나의 방식은 엄청난 자금력을 동원한 정치권 로비 활동이다. 그들은 중요한 고비마다 사학에 이해 관계가 있는 인맥을 총동원하여 광범위한 정치권 로비를 전개해 왔다. 우리나라 사학의 자금 동원력과 로비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

로 정평이 나 있다. 많은 정치인들이 사학으로부터 작은 신세라도 지고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 정권 교체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 상황에서 이들의 로비가 옛날처럼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는 두고 볼 일이다. 보수 정치 세력도 국제 사회의 보편적 규범을 존중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언제까지 반대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법제화까지의 준비와 과제

합법화를 앞둔 현시기 전교조 앞에는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다. 우선 반대 세력에 대한 대응이다. 그러나 보수 세력의 반발과 저항에 직접 대응하는 것은 현명치 않다는 판단이다. 오히려 더욱 성숙된 자세로 국민들에게 교육 대안 세력으로서의 전교조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교육 관련 단체들과의 공동 사업을 강화하여 국민의 지지를 얻는 한편 정부의 교육개혁에도 적극 협력해 나아가 갈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전교조와 교육 시민사회 단체들은 새 정부의 개혁적인 교육부장관 취임을 환영하면서 교육개혁의 동반 세력이 될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

한편 조직의 확대와 강화는 합법화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학교 현장 교사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대중 사업을 통하여 조직을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 아직은 관망하고 있는 대중 교사들에게 다가가는 홍보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조합의 기본 교육을 강화하여 합법화

를 준비해 나아가야 한다. 전교조 조합원으로서 동료 교사와 학생들에게 신뢰받는 교사가 되기 위하여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학부모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사업도 다양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제화 과정에서 부딪칠 험난한 고비는 전교조의 힘만으로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것이다. 전교조 합법화라는 노사정 합의는 민주노총이라는 조직과 노동형제들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본질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희생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약속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는 전국의 노동형제들이 함께 싸우고 지원해 주어야 한다. 교육이 교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듯 전교조는 교사들만을 위한 조직은 아니다. 노동자들의 자녀를 포함한 국민 전체의 교육을 위한 조직이기도 하다. 전교조의 합법화는 민주노총의 조직 확대를 위한 전략적 과제로 설정되어야 한다.

전교조 활동 10년의 성과, 그리고 합법 시대

전교조 합법화의 중요한 의의는 지난 10년 동안 전교조 활동의 정당성이 역사적으로 평가되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우리 교육에는 과거 수십 년 동안 워낙 많은 모순과 문제들이 누적되어 왔다. 그러기에 전교조의 '참교육'이라는 말은 모든 국민들에게 참신한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전교조의 정책 대안과 주장에 대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지와 동조를 보내 주었다.

정부에서도 겉으로는 애써 우리를 외면해 왔지만 정부가 추진해 온 교육개혁에는 우리의 대안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다.

'교육재정의 GNP 5%' 요구는 3.6% 수준이었던 당시로서는 부러하기 짝이 없는 주장처럼 여겨졌지만, 이제 10년만에 요구가 거의 관철되었으며 지난 대선에서는 모든 후보들이 6% 수준을 공약으로 내걸기에 이르렀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밀학급과 거대학교 문제도 아직은 미흡하지만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왔다. '학급당 학생수 30명' 요구도 60-70명 수준이었던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주장처럼 보여졌지만 지금 현재 40명 수준까지는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제도 개선 투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이다. 교육자치와 함께 '학교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의 정책 대안이 변형된 형태로나마 수용된 것이다. 아직 정착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지만 교육주체인 교사와 교장,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하여 학교 운영의 중요한 내용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교장의 전횡으로 결정되던 학교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제도라 평가할 수 있다.

참교육 실천 활동: 가르치는 것도 싸우는 것이다.'

해직교사 출신의 한 시인은 "가르치는 것도 싸우는 것이다"라고 어느 시에서 토로한 적이 있다.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 투쟁인가는 교사가 아니교사는 실

감할 수 없는 말이다. 올바른 교사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지난한 싸움이다. '전교조 교사= 의식화 교사'라는 독재 정권의 무자비한 이념 공세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지난 10여년을 지치지 않고 참교육운동을 실천해 왔다.

전교조의 참교육 실천 활동은 제도 개혁 투쟁과 함께 양 축을 이루는 핵심적인 사업이다. 각종 위원회 가운데 교과위원회에는 국어, 역사, 사회, 과학 등 개별 교과 모임이 구성되어 교과서에 대한 분석과 교재 연구, 학습 방법 개발 등 학교 현장에 필요한 수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문예위원회에는 풍물, 연극, 놀이, 영상 등의 분과 모임이 구성되어 특별활동에 필요한 내용들을 제공하고 있다. 학생생활국에서는 생활지도와 학생문화에 대한 연구와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부서에서 주관하는 방학 연수에는 해마다 수천 명의 교사들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고 있다.

한편 전교조 산하의 출판사에서 펴내는 월간지 '우리교육'은 교육전문지로서 양질의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다량의 교육 관련 도서를 출판하고 있다. 전교조의 이러한 활동은 합법 시대를 맞아 더욱 대중적인 사업으로 활발히 전개될 것이다.

전교조의 합법 시대는 생각만으로도 가슴 벅찬 일이다. 우리의 꿈은 아이들이 신명나게 뛰놀고 공부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 학교를 살리자! ❖